

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코로나-19 속 어린이집 일상 들여다보기

손 준 희¹⁾ 김 선 희²⁾ 이 회 영³⁾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본 연구는 2020년 1월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 발생으로 시작된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된 어린이집 원장들이 경험하는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는 B시 소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5명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3회의 면담을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2개의 상위주제와 9개의 하위주제로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 속 어린이집 원장들은 단허버린 어린이집, 휴원 연장과 긴급보육의 두 얼굴, 예산의 계획과 집행의 어려움, 마스크에 갇혀버린 일상, 지킬 수 없는 매뉴얼, 계속되는 신입생 적응기간 등의 홈 파인 공간을 경험하였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 속 어린이집 원장들은 파인 홈 속에서 서서히 건강관리 책임자로서의 경계지대 및 보육철학, 보육과정 계획 및 실행자로서의 경계지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 연구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연구 자료의 분석과정을 통해, 이들이 체험한 코로나-19 속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의 위기 대응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 코로나-19, 어린이집 원장, 홈 파인 공간, 경계 지대

1)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2) 연지꿈동산어린이집 원장

2) 교신저자 :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mail: hylee@pknu.ac.kr)

I. 서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허베이 성을 넘어 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유럽 및 북미 등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너무나 빠르게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접어들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2020년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임을 선포하고, 2020년 2월 28일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우 높음’ 단계로 높였고, 2020년 3월 11일에는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였다.

2020년 9월 6일 현재, 우리나라 확진환자는 21,177명이며, 완치자는 16,146명, 사망자는 334명에 다다르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확진환자가 27,062,744명, 완치자는 1,916,291명, 사망자는 883,740명으로(보건복지부, 2020c) 코로나-19는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는 확진자의 동선 공개 및 신속한 방역을 하는 등 전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실시하였다. 대학의 개강 연기 및 유치원, 초중고 개학연기, 어린이집 휴원 등 전례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한국사회는 ‘마비’가 되었다.

영. 유아는 성인에 비해 생리적 변화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이 높고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응급상황 시 다른 연령 집단의 질병에 비해 중증으로 악화되는 확률이 높아지며(박건희 등, 2008; 홍진호, 민옥기, 조아라, 임환섭, 2019; Pilliteri, 2003), 결과적으로 영. 유아 시기의 질병은 영구적인 결함 또는 사망

에 이르기까지 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Safadi, 2020. Zimmermann & Curtis, 2020). 또 하루 중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밀집된 공간에서 영. 유아끼리 잦은 접촉이 많아 전염병에 취약하다(민정애, 2010). 그렇기 때문에 영. 유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에 대하여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은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한다(한현정, 채혜경, 2018).

어린이집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하며 정부에서 정한 보육정책과 지침을 적용하여 운영한다(배수정, 2012).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도 정부에서 주어지는 지침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고(고광옥, 2020),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휴원 조치를 시행하였다. 2020년 2월 27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휴원령이 내려졌으며 지역사회에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2020년 5월까지 휴원 기간이 연장되었다(보건복지부, 2020b). 처음 경험하는 장기적인 휴원으로 어린이집은 생경한 상황에 대응 하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은 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육업무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과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 등 다양한 이유(이옥경, 2015)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은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른 두려움으로 입소를 연기하거나 포기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기의 마무리와 시작을 준비하는 2월과 코로나-19의 전염확산 시기가 맞물리면서 입소를 포기하는 아동이 늘었으며, 이러한 일은 어린이

집 운영을 어렵게 하고 교사들의 고용유지 보장 또한 어렵게 만들었다.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회적인 어려움은 어린이집 운영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원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한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강미숙, 이승은, 송승민, 김수지, 2019).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순간까지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를 법정감독 의무자에 준하여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국지윤, 2020).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원아관리, 종사자관리, 사무 및 재정관리, 시설관리,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조, 운영의 계획과 변경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정덕희, 2008; 정미애, 이해선, 배지희, 2020).

코로나-19는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어린이집원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손희나, 2020).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재난 사회 속에서 어린이집 현장 내의 올바른 역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수행된 보육현장의 감염병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김일옥과 박현정(2014), 배정호(2011), 정아란과 최민수(2017) 등의 유아교육 기관 내 교사들의 감염병에 대한 교사의 관리수행 능력을 다룬 연구와 김동희와 박정하(2018)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확산 이후 어린이 감염예방을 위한 웹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

들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신종감염병은 있었고, 어려움은 비슷한 듯 다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인 어린이집의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과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여 안정성을 되찾게 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김윤경, 권경숙, 2013). 이러한 위기상황에서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김윤경, 권경숙, 2013; 차영숙, 권미량, 2011).

어린이집에서의 코로나-19 관련 연구는 보육교사의 정서적 경험을 다룬 최예린(2020)의 연구와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어려움을 다룬 손희나(2020)의 연구 2편에 불과하여, 보육 현장에서의 코로나-19 가 주는 의미를 알아보는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종감염병의 특성인 예측 불가능성으로부터 오는 두려운 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연구 자료의 분석과정을 통해, 이들이 체험한 코로나-19 속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의 위기 대응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속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느끼는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B시 소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5명이다. 본 연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의 이름과 어린이집명은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간략한 배경을 표 1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연구 절차

예비 조사

어린이집 원장들의 코로나-19를 경험하는 동안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나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및 보육 현장의 실제 등에 관한 면담 질문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20년 6월 18일에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 2인을 개별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코로나-19를 경험하는 동안 어린이집 원장들이 운영과 관련하여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본 조사에서 사용될 질문들 - 코로나-19를 경험하는 동안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의 변화, 보육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 보육 철학, 학부모들과의 관계 및 부모교육, 보육교직원과의 의사교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교류 등 - 을 구성하는데 참고하였다.

본 조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20년 6월 중순부터 2020년 8월말까지 각각 원장별로 개별적인 면담을 총 3회, 회기 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 실시하였다. 개별 면담은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한 질문을 토대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가까운 외부 장소에서 원장 1인당 2회, 전화면담 1회씩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접촉에 대한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3회기는 전화면담을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구분	B원장	J원장	K원장	S원장	L원장
시설유형	국공립 (개인위탁)	국공립 (법인위탁)	직장	민간	가정
지역	J구	S구	N구	H구	K구
원장경력	14년차	9년차	4년차	4년차	6년차
전공	유아교육전공 석사수료	유아교육전공 박사수료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유아교육전공 박사수료	유아교육전공 박사수료
정원	49	52	20	33	20
학급규모	7	6	3	6	4
교직원수	10	10	6	9	7

진행하였다. 1차면담은 어린이집 원장과의 레포를 형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2차면담은 코로나-19를 경험하는 동안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과 달라진 어린이집의 일상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차면담은 1, 2차면담의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는 중 새롭게 드러난 문제점이나 의문점들을 해소하거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구술할 수 있도록 전화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개별면담의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고 면담 중 중요한 메시지를 메모하였으며 면담을 마치고 즉시 전사하여 자료화 한 결과 전사된 총 분량은 녹음 1,050분, 전사 183 페이지이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면담을 통해 얻은 전사 183 페이지이다. 본 연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나타난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자료 분석 방법은 최예린(2020)의 연구에서 사용된 Giorgi(1985)의 네 가지 현상학적 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Giorgi(1985)는 현상학적 방법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는 전체 기술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전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초점을 두면서 다시 여러 차례 텍스트를 읽는 것, 셋째는 ‘의미 단위’를 파악하고 그 안에 내포된 닫혀버린 어린이집, 휴원 연장과 긴급

보육의 두 얼굴, 예산의 계획과 집행의 어려움, 마스크에 갇혀버린 일상, 지킬 수 없는 매뉴얼, 계속되는 신입생 적응기간, 건강관리 책임자, 보육철학 보육과정 계획 및 실행자로서 삶 등의 심리학적 의미를 찾아내며,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일관적인 진술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면담에서 얻어진 원 자료에서 주제개념을 찾기 위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은 후 각 에피소드에서 ‘흐마인 공간을 경험하다’와 ‘경계지대로 나아가다’ 2개의 대표적인 코드를 뽑아내었다.

또한 연구자는 조용환(2011)의 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자 단독으로 확보 가능한 것이 아닌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독자가 함께 구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질적 연구의 타당성의 개념에 따라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아래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자료수집과 분류 해석의 전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5인의 경험 및 생각이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구성원 검토(member check)를 실시하였다(Glesne, 2016: Glesne, 2017).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왜곡 없이 자신들의 경험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적절한 주제 도출로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속 어린이집의 일상을 되돌아보았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와 해석과 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동료연구자와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유아교육과 교수에게 의견을 구하는 동료검증(peer debriefing)을 실시하여(Creswell, 2013: Creswell, 2015.) 수정을 거듭하였다. 전문가에게 연구결과 및 해석과 정리방법에 대한 수차례의 재검

토와 재분석 및 협의 과정 실시를 통해 해석상의 오류를 줄이고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Giorgi(2004)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연구자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의 의미를 밝혀준 9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2개의 상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초기에는 상위주제가 정서적 경험, 일상의 변화 및 원아관리, 사무 및 재정관리, 종사자 관리, 시설관리, 운영의 계획과 변경,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조 등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원장의 역할 중심으로 도출되었으나 코로나-19 속 달라진 일상을 경험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겪는 다양한 변화 과정을 반복적으로 읽고 연구자간 수정, 분석을 통하여 질 들뢰즈의 ‘홈파인 공간을 경험하다’와 ‘경계 지대로 나아가다’ 두 개의 큰 주제를 도출하였다.

1. 홈 파인 공간을 경험하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의 개념을 빌어 표현하자면 코로나-19 속 달라진 일상을 경험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삶은 ‘홈 파인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 들뢰즈는 ‘홈 파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의

개념을 사용하여 통제적이고 닫힌 공간에서 그로부터 탈주하고 변모하는 공간 형성의 요소를 찾을 수 있으며, 낮은 상황에 마주하는 개체가 원래 공간을 변모하고 변형시키기도 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다(김은주, 2016).

어린이집 원장 그들이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코로나-19를 경험하는 어려움은 여러 복합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로 인해 운영 및 보육업무 등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맞벌이 가정 보육의 어려움과 육아 부담이 높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대책 등 다양한 이유로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코로나-19 라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일상을 보내야 했다. 마스크에 갇힌 일상과 지킬 수 없는 매뉴얼 등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진 파인 홈들 속에 그들이 위치하고 있음을 이야기 한다.

단혀버린 어린이집

2020년 2월23일,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에 긴급 휴원(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에 의거)이 실시되었고, 2020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어린이집 휴원을 결정(보건복지부, 2020b.) 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유아교육에 몸담은 지 198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연구자의 선배 유아교육자들 역시 ‘전국 어린이집 휴원’은 듣지도 보지도 못함은 물론 상상 속에도 없던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어린이집마다 졸업식을 앞두고 있었으며 입학식 그리고 신입생 학부모

표 2. 어린이집 원장이 바라보는 코로나-19 속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의 개념화

의미단위	하위구성요소	상위구성요소
· 무서움, 놀람, 걱정하는 마음을 경험함 · 매뉴얼대로 실시하게 됨 · 확진자 검색으로 매일이 가시 방식임 · 졸업식·입학식 학사 일정이 모두 취소됨 · 막연함, 막막함, 불안함의 일상에 놓임 · 부모들에게 긍정적 확신을 줄 수 없는 심리적 부담과 한계를 경험함.	단혀버린 어린이집	
· 확진, 감염에 대한 염려가 큼 · 긴급보육 이용률이 증가함 · 적은 인원수 등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에 대한 불신 · 보육의 공백 발생 · 긴급보육에 대한 매뉴얼 부재로 혼란	휴원 연장과 긴급보육의 두 얼굴	
· 원아감소에 대한 불안이 커짐 ·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는 있는데 아이는 오지 않는 어린이집 · 아이들의 부재로 퇴사를 선택하는 교사 · 취소와 입소연기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 · 양육수당을 위한 부모들의 퇴소 결정 · 교사급여가 부담됨 · 아이는 오지 않고 인건비는 원장 부담 · 늘어난 문서로 업무의 가중화	예산의 계획과 집행의 어려움	홈 파인 공간을 경험하다
· 마스크 착용으로 교사들의 두통, 피로도 호소 · 마스크를 써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바깥활동 · 마스크를 끼기 싫어하는 아이들 · 소독 및 방역 업무가 늘어남 · 아이들도 지켜야 할 개인위생이 늘어 남	마스크에 간혀버린 일상	
· 따라주지 않는 물리적 환경이 힘들 · 보육실의 한정된 공간에서 2m거리두기 불가 · 영아들의 보육 밀접 접촉이 수반됨 (기저귀 갈이, 식사지도 등) · 함께 놀고 싶은 아이들이 안쓰러움 · 아이들이 혼자 놀아야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함 · 교사 의심 증상, 대체교사 수급의 어려움 · 보육과정의 혼란 · 감정보다 매뉴얼이 우선 · 비구체적 매뉴얼로 학부모 민원발생	지킬 수 없는 매뉴얼	
· 매일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긴급 보육 이용으로 4개월째 이어지는 적응기간으로 지쳐감 · 통학차량 시간이 길어짐 · 입소대기, 잠정적 입소의 어려움	계속되는 신입생 적응기간	

표 2. 어린이집 원장이 바라보는 코로나-19 속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의 개념화

(계속)

의미단위	하위구성요소	상위구성요소
· 하늘의 별따기 마스크 구매의 다양한 방법 강구 · 소독 및 방역 업무가 늘어남을 부모님과 협력관계 형성하기 · 놀잇감 소독을 철저히 실시함 · 안전을 위해 제한적 신체접촉을 하게 됨 · 위생관념의 생활화로 줄어든 약봉지 ·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 재발견	건강관리 책임자로서의 경계지대로 나아가다	
·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뛰어노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안전, 건강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느낌 · 공동체의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강화함	보육철학의 경계지대로 나아가다	경계지대로 나아가다
· 마스크와 함께 하는 바깥놀이 · 신입원아교육의 장기화로 보조교사 역할 자처하기 · 소독비용에 대한 예산 확보 · 보건복지부 매뉴얼과 교육부 매뉴얼 혼합사용 · 열체크를 아이들의 건강을 파악하는 데이터로 활용 · 비대면 부모교육 구성하기 · 교사회의 방식과 배치의 변화	보육과정 계획 및 실행자로서의 경계지대로 나아가다	

를 위한 적응교육 기간으로 어린이집은 아주 분주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한 채로 어린이집 교직원들만 불안한 가운데 어린이집을 지키고 있었다.

처음엔 조금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고, 휴원 발표 후엔 아……. 코로나-19 질병이 대단한 거구나……. 전쟁 중에도 학교는 열렸는데 무서웠어요.

(2020년 6월 27일, K원장, 개별면담)

코로나19때문에 졸업식이나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그때 상황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건지 모르니 그냥 막연하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고……. 졸업식도 취소하고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까지라는 것들이 없었으니 불안함이 컸고 막막하다고 해야 하나요?

(2020년 6월 30일, B원장, 개별면담)

처음 휴원 소식을 접했을 때 너무 놀라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확진자가 H구랑 관련이 있어서 더 걱정이 많았었고, 그때부터 발을 동동 굴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나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원장님들과도 소통을 해 봤지만 그 분들도 처음 있는 일이라 같이 전전긍긍하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을 감

추지 못했어요.

(2020년 7월 7일, S원장, 개별면담)

원장들은 그들의 삶에서 처음으로 겪게 된 ‘긴급 휴원’에 대해 한마디로 ‘불안함의 연속’에 서 있는 것’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휴원은 처음 1주일에서 다시 2020년 3월 8일까지로 연장되었고(보건복지부, 2020b), 2주일씩 2차례 더 연기 후, 급기야 2020년 3월 31일엔 기한도 없이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과 어린이집 내 감염 가능성과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결정하겠다’는 공문을 어린이집으로 보냈고, 결국 이 길고 긴 휴원은 2020년 5월 29일에서야 2020년 6월 1일자로 해제되었다. 하지만 다시 2020년 6월 17일 휴원 권고를 시작으로 긴급보육을 이어가던 어린이집은 2020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 결정사항으로 2020년 10월 12일부터 정상운영되었다. 원장들은 기한이 불분명한 휴원 연장으로 인해 졸업과 입학이라는 중요한 학사일정에 대한 연기와 취소를 결정해야 했고,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어린이집 영유아는 물론이고 교직원들의 감염까지 걱정하면서 불안한 시간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휴원 연장과 긴급보육의 두 얼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을 안내하는 공문마다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하니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안내하였고, 긴급보육은 누구나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 가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도 안내하였다.

우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원에 등원 중인 친구들이 혹여나 확진이 되지 않을까 또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일 먼저 됐고요. 뉴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영아들이나 어린 애기들 측면에서는 좀 더 감염률이 높을 것 같아서 긴급보육을 하는 것이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2020년 6월 28일, S원장, 개별면담)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과 관련해서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침에 따르면 이유를 불문하고 긴급보육을 받아들여야하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염의 우려가 큰상황인데도 아이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등원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중략) 맞벌이가 아니고 가정정보육을 할 수 있는 가정이지만 매뉴얼대로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긴급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긴급보육이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다 긴급보육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긴급보육을 했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가 왜 코로나에 대해서 긴급보육을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했는지 아직까지 많이 의문스럽긴 합니다. (중략) 저희는 휴원이 끝나기 전까지 두 명 빼고 다 왔었어요.

(2020년 7월 9일, L원장, 개별면담)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부모들은 가정보육에 지치기 시작했고 본인의 의사보다 다른 아이들은 긴급보육을 이용하느니 안하느니에 대한 궁금함을 어린이집으로 문의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결국, 처음엔 감염우려로 보내지 않던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긴급보육을 신청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어린이집 내에서의 감염을 걱정하는 원장들의 불안감은 더욱 더 커지게 되었다.

예산의 계획과 집행의 어려움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지원받고, 가정양육을 하면 양육수당을 받게 되어 있다. 휴원이 길어지면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예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양육수당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내용이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일부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료 결제도 받지 못하고 인건비를 자기 부담으로 떠안아야 하는 경우 (2020년 7월 7일, S 원장, 개별면담)도 있었다. 그나마 재원생인 경우는 어린이집과의 유대감이나 교사와의 관계로 인해 재원을 유지하지만, 신입은 아직 어린이집에 한 번도 와 보지 않은 상황에서 입학이 미뤄 지다보니 결국 원장들은 매일 퇴소하겠다는 학부모의 전화벨 소리가 울릴까봐 전전긍긍하고, 결제되지 않은 영유아의 보육료예산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코로나가 올2월부터 되어있는데,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3~4월에 입소문의가 많고 2월 달에도 입소문의가 많은데 일단은 그 시기

에 혹시 나갈까봐 걱정을 해야 되고, 실제로 나간 아이들도 좀 있고.

(2020년 6월 30일, B원장, 개별면담)

첫 번째는 아이들의 건강.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그로인해서 아이들이 혹시나 원아가 감소하지 않을까? 그러한 불안감... 아무래도 원장의 입장에서 운영도 해야 되고 특히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맞아야 인건비지원도 되고 하니깐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 어쨌든 가-승-전 운영으로 기결되는 느낌은 좀 있어요. 다들 처음에는 걱정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애들이 혹시나 집에서 좀 쉰다하면 어떡하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을에 2차 팬데믹이 온다하는데 그때는 이게 과연 유지가 될까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2020년 7월 2일, J원장, 개별면담)

우선 경영자의 입장으로 운영비가 융통이 잘 안되다 보니깐 선생님들 급여부분이라든지 다른 운영비, 비용부분에서 제가 충당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신입생 친구들이 입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선생님들을 제가 배정해 두었는데 두 세반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유지가 되었고, 어머님들이 3월 달에 정상적으로 입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등원을 못하니 양육수당을 받기를 원하셔서지고

그래서 6월 달에 첫 등원을 하면서 그제서야 제가 보육료를 받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2020년 7월 7일, S원장, 개별면담)

코로나가 지속이 되다보니깐 이제 내가 3월 되면, 4월 되면 입소를 해야지'라고 잠정적으로 있었던 입소대기들이 원활하게 5월 되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략) 어머니들께서 24개월 이후에 보내야지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상반기지만 따뜻해지면 5월 달에 보내야지 6월 달에 보내야지 계획을 하실 거거든요. 조금 잠정적인 입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또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2020년 7월 9일, L원장, 개별면담)

마스크에 간혀버린 일상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코로나 대응지침 매뉴얼에는 영아들의 경우 마스크사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과 함께 아동들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고, 보육교직원은 보육시간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마다 아동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상반된 의견으로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고, 선생님들 역시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힘겨워하며 아동들과의 상호작용도 점점 지쳐가는 건 아닐까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마스크 착용을 출근부터 시작해서 퇴

근까지 해야 하므로 교직원들의 두통이나 또 피로를 호소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욱 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마스크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다보니…….

(2020년 6월 27일, L원장, 개별면담)

아이들도 교사들도 마스크를 끼고 소통하다보니 오히려 더 소통이 잘 안되니 문제가 되는 거죠.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로 인한 부작용 때문인지 말수가 적어지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 걱정스럽기도 하죠.

(2020년 7월 1일, K원장, 개별면담)

가급적이면 아이들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체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 급작스러운 시간에 나가다보면 다시 마스크를 찾는다고 뒤로 돌아오는 부분도 있구요. 일단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조차도 사실 제한적인 것 같아요. 마음껏 안아주고 싶은데도 혹시라도 이렇게 했다가 저도 조심하고는 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가 안아줘서 그렇다고 이야기할까봐.

(2020년 7월 3일, B원장, 개별면담)

실내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영아들이 안 하더라도 나갈 때는 필수로 다 하는데 애기들이 바깥활동을 할 때 마스크가 빠지거나하면 해달라고 선생님께 요구하곤 해요. 하지만 익숙지 않아서인지 자꾸 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특

히 적응 기간이라 우는 아이들은 마스크를 빼야하는데 그럼 울음으로 인해 오히려 더 감염에 취약해지니 선생님들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아보여서 안타까웠죠.

(2020년 7월 7일, S원장, 개별면담)

지킬 수 없는 매뉴얼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라는 매뉴얼대로라면 보육실에서 영유아들간의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간상 2미터씩 떨어진다면 저 안에 교실에 아이는 3명 정도 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공간에 한 교실에 7명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매뉴얼을 따를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 매뉴얼을 따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귀저기 갈아 줘야 되고 양치도 시켜줘야 되는데

(2020년 7월 1일, K원장, 개별면담)

아직 어리니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교사의 도움이 없이는 영아가 혼자 식사하기가 힘든 상반기에 있다 보니깐, (중략) 교사가 거의 50%이상 떠먹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칸막이가 있다 치면 그 칸막이 너머로 할 수 없잖아요

(2020년 7월 9일, L원장, 개별면담)

일단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예전에는 “함께 놀아요.” 했으면 지금은 “좀 떨어져서 놀아요.” 이라고 애들이 “왜요?” 이러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깐. 아이들은 “같이 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은 “그래도 조금 떨어져서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략)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집에 가서 얘기 하는 특히 7세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반에는 조금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학부모님이랑 상담도하고 했는데 이제는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깐 애들도 이제 그 생활에 적응이 조금 되어서 지금은 조금 그런 말을 안 하고 반면에 우리도 조금 나태해져서 어차피 같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놀면 같이 노는 대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조금 다르게 가고 있죠.

(2020년 7월 2일, J원장, 개별면담)

유아보다 특히 영아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부터 모든 활동에서 교사의 밀접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금 코로나시대 때 교육과정은 또 이대로는 괜찮을까? 라는 생각은 과제로 남는다.

계속되는 신입생 적응기간

신학기 적응기간의 장기화 된 것들이 제일 크게 바뀐 점인데, 아이들이 적응의 기간을 두고 있을 때에 원장이 그 아이

들을 개별적으로 신경 쓰고 그 아이들이랑 엄마들이랑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은 기본인데 그 상담의 시간이랑 기다려주고 받고 또 데려다주는 그런 시간이 어쨌든 4개월이잖아요. 왜냐하면 교실엔 아이들이 있으니깐, 그러니깐 선생님은 교실 밖을 나오지 못하니깐 원장이 기다렸다가 부모를 만나서... 어쨌든 원장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전달을 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실에 들어가서 애 보고 있고, 또 올면 데리고 나와서 분위기 전환시켜주고 엄마가 데리러오면 “오늘은 어떻게 놀았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또 아이를 받을 때도 “오늘은 어떤 놀이를 하고 놀거야?” 애들이 기분 좋게 들어올 수 있도록 원장이 하다 보니 우리의 고유 업무들을 봐야 뭘에도 불구하고 그런걸 보지 않고 진짜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 아무 일도 못하죠.. 평등 사실 문지기죠. 문지기.....

(2020년 7월 9일, B원장, 개별면담)

예년 같으면 적응기간을 마치고 한참 보육 과정에 꽃을 피우고 상호작용할 시기에 중간 중간에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등 시작시기가 모두 달라지다보니 어린이집에서는 한 보육실 내에서도 이제 적응하는 아이와 적응을 마친 아이가 함께 생활하며 그야말로 교사와 원장은 아이들마다의 다른 보육일정을 소화하느라고 군분투 중이었다. 인터뷰 중 J원장은 “요즘 제일 무서운 말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다(2020년 8월17일, J원장, 개별면

담)”라고 전했다.

2. 경계지대로 나아가다.

되기의 ‘become’이라는 동사는 ‘됨’을 표현하는 것으로 독일어 ‘werden’이나 프랑스어 ‘devenir’ 처럼 생성이라고 번역이 된다. 생성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서 다른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이정우, 1999). 즉 되기는 사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물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에서 드러난다. 되기는 A와 B라는 두 지점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A나 B가 아닌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양희영, 2009). 이는 물질성을 지닌 구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남’과 ‘접속’을 통해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달라지고 변화됨을 의미한다. ‘되기’는 모방, 또는 유사하게 되는 것이나 동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되기’는 서로 닮아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출해가는 것이다(이정우, 2005). 각종 차이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협상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경계 넘기라는 행위를 경험하게 된다(정현주, 2015).

본 연구에서 만나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능성의 특성을 지닌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두려운 상황으로 부터 경험하는 수많은 ‘파인 홈’으로부터 새로운 자기를 생성하고자 탈주하는 운동성을 나타내었다. 주어진 매뉴얼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을 고민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보육과정의 혼란을 거치면서 홈

파인 공간을 거쳐 매끄러운 공간으로 어린이 집 원장 스스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는 반복적인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임지현과 이경화(2018)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Gloria Anzaldúa의 언어로 표현하면, 일종의 ‘경계지대’로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계지대란 인위적인 경계(borders)에 의해 형성된 불편한 감정들이 합해져서 형성해 낸 확정되지 않고 모호한 장소이며, 머물러 있지 않는 항상 변화 가운데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모호한 존재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달라진 일상을 살아가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한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정한 보육정책과 지침을 적용하여 운영하면서, 건강관리 책임자로서, 보육철학, 보육과정 계획 및 실행자로서의 경계지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건강관리 책임자로서의 경계지대로 나아가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에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과 긴급보육이 실시되다가 현재는 휴원이 해제되었지만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스크 때문에 제가 수면습관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로 인해서! 초에는 마스크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직장 어린이집에 코로나가 발병이 되어서 위탁업체를 끼고 있는 곳이라 혹시나 뉴스

에 나오는 확진자가 우리 어린이집에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소독하고 마스크 구매에 대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새벽3시에 일어나서 000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막 구매하고 다음에 취소되면 또 다시 들어가서 구매하려고 새벽 2시 3시 잠 안자고 구매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구매하기가 수월해 진 것 같아요.

(2020년 7월 1일, K원장, 개별면담)

출근하면 제일 먼저 손 소독을 하고 그 다음 발열체크하고 그 다음에 분무기 들고 내가 잡았던 문부터 시작해서 다 닦고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은 제가 했었어요. 모든 소독은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린이집에 제균기도 설치하고, 살균소독도 더 추가해서 실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일단 원장으로서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2020년 7월 3일, B원장, 개별면담)

우선 청결이나 위생부분에 훨씬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요. 청결에 대한 인식들이 학부모를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생활화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습득이 된 것 같아요. 일상으로. 우선은 보육시간이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아까도 언급했듯이 청결이라든지 위생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자 놀잇감이라든지 그런 소독이라든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고요. 코로

나19에 관련된 파일이 하나 더 생겨났고요. 문서가 더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2020년 7월 7일, S원장, 개별면담)

좀 더 위생관념이 생기고, 예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쳐도 모자라지 않구나. 그런 위생관념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명백해진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까지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항상 생겼는데 이제는 느낌표가 되었어요.

(2020년 8월 20일, L원장, 개별면담)

코로나-19 매뉴얼에서는 어린이집에 건강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직원과 모든 영유아들에게 1일 2회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보건복지부, 2020a) 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원장을 건강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체열기록을 문서화하며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 가고 있다.

보육철학의 경계지대로 나아가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보육철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원장들은 그들의 보육철학에 있어 큰 틀은 변함이 없지만 건강과 안전, 위생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개개인 각자가 자기관리를 잘 수행하여야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방법적인 면에서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다.

일단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안전하고 건강은 기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탁 되다 보니깐 우리주변에 건강과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은 크게 무의미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중략) 우리가 행복하려면 공동체가 행복해야지 같이 행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유아의 개성이라든지 유아의 인격, 유아의 자율성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면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선이 대게 중요한 덕목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도외시를 시키지 않았나. 나 스스로 아이들한테 그러한 생각들을 크게 했었고.

(2020년 7월 2일, J원장, 개별면담)

원장인 저도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교사들도 일단 보육철학이라는 거창한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A의 영아를 돌보고 B의 영아도 돌보고 C의 영아도 돌보는 사람은 결국에는 교사니깐 감염에 있어서 교사가 매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사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손 소독하고 마스크도 계속 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원에서 기침도 없고 감기도 없는 거 같다.”라고 하면서 “교사의 위생이나 소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교구의 소독을 하니깐 전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정말 유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결

론을 내렸거든요.

(2020년 7월 9일, L원장, 개별면담)

저는 보육철학에 있어서 더 강화된 부분들의 하나인 게 기본생활습관지도의 부분들을 우리어린이집에서 잘해서 아이들이 기본을 잘 지키는 어린이로 성장시키는 것들이 저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서 위생의 부분들에서 더 기본생활습관을 잘 지키는 좀 더 강화된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어린이집 내에서 뭔가 감염병이 돌지 않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기지 않도록 선생님들과 협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2020년 8월 24일, B원장, 개별면담)

보육과정 계획 및 실행자로서의 경계지대로 나아가다.

코로나-19는 어린이집 일상에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으나 선뜻 다가가지 못하게 되었고, 안아주더라도 혹시나 나로 인한 감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만들었다. 청결과 위생 및 방역활동으로 인해 업무는 늘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 교직원과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 여기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다.

“힘들어요” 하고 얘기는 하지만 마스크 껴야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엄마들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마스크는 밖에서는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낀다. 그래야지 바깥에서 놀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 안내하면서 이제는 영아들도 스스로 마스크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20년 7월 1일, K원장, 개별면담)

교사들과의 소통은 그룹 카톡으로 일단은 먼저 올리고, 각자 읽어보라 하고 그다음 교사 개인시간에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할 게 있으면 교육을 하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룹 카톡에 올리는 정보들이 많아졌어요.. 원장입장에서 특을 먼저 올리는 거는 일단 신속한 차원에서 올리고 지금 현재는 원장이 다니면서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죠. 반마다 들어가서, 지침이나 공문내용도 제가 읽어보고 선생님들이 특히 좀 유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선생님들한테 직접 얘기를 하죠. 직접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은 교사 회의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2020년 7월 2일, J원장, 개별면담)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건강이나 위생, 환경 소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지출이 많아지고요. 일단 우선순위가 되고 있죠. 위생용품과 방역물품 구비에 신경을 쓰고 교직원과 함께 매뉴얼대로 업무를 실시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니까요.

(2020년 7월 3일, B원장, 개별면담)

일단은 조금이긴 하지만 보조금을 주셔서 가능한 방역물품을 구입하긴 했는데 정확한 매뉴얼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교육청보다 조금 늦게 내려오고, 교육청 거를 먼저 받아보고……. 특히 이번 코로나 때는 일단 교육청 매뉴얼과 어린이집 매뉴얼을 함께 참고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2020년 7월 7일, S원장, 개별면담)

이제 아이들 건강관리를 체크해야하기 때문에 문서와 업무는 더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있고, 하지만,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 더 민감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감기나 질병으로 아파도 어머니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어린이집을 보내시는데 코로나-19 전보다는 훨씬 더 감기를 하거나 코를 흘리거나 기침을 하는 아이들은 현저히 작아진 건 맞는 거 같아요.

(2020년 8월 12일, K원장, 개별면담)

부모교육이나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초반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상코로나 코로나 블루 이런 부분이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를 방역할 수 있는 이런 부모교육 자료들 그런 것들이 나간 거 같아요.

(2020년 8월 20일, L원장, 개별면담)

일상적으로는 함께 모이는 장소를 마

련해서 기회를 마련하고 했을텐데 지금은 전혀 부모님들이 같은 한자리에 모여서 OT를 행사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화통화로 이루어지거나 부모 운영회 같은 경우도 전체 카톡으로 열어서 앱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방법측면에서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조금 친화감도 가지면서 장점도 있긴 한데, 지금 하는 방법이 또 다른 장점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동시에 시간을 낸다든지, 그런 시간을 할애한다는 부분에서는 만족감이 조금 더 큰 것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020년 8월 25일, S원장, 개별면담)

이제 감염병이란 위험 요인은 우리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버렸지만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감염병이 사라질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함께 안전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20년 1월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 발생으로 시작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느끼는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5명의 원장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코로나-19 속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 속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종감염병이라는 홍파는 작용에 의하여 포획되어 ‘홈 파인 공간’에서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점차 새로운 공간을 생산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운동을 하며 ‘경계지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 속 어린이집 원장들은 닫혀버린 어린이집, 휴원 연장과 긴급보육의 두 얼굴, 예산의 계획과 집행의 어려움, 마스크에 갇혀버린 일상, 지킬 수 없는 매뉴얼, 계속되는 신입생 적응기간 등의 홈 파인 공간을 경험하였다. 원장들은 기한이 불분명한 휴원 연장으로 인해 졸업과 입학이라는 중요한 학사일정에 대한 연기와 취소를 결정해야 했고,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어린이집 영·유아는 물론이고 교직원들의 감염까지 걱정하면서 불안한 시간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2월 20일 미술학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확진 기사(중앙일보, 2020)와 2월 23일 4세 아이의 확진 기사(국민일보, 2020)는 어린이집 현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으며, 확진자가 연일 증가 되고 누구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안감과 공포는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하였으나, 처음엔 감염우려로 보내지 않던 학부모들이 코로나로 가정보육이 길어지면서 피로도가 높아지자 점차 어린이집에 긴급보육을 신청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어린이집 내에서의

감염을 걱정하는 원장들의 불안감은 더욱 더 커지게 되었다. 스트레스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윤희수, 2016), 이러한 코로나-19 속 어린이집 원장의 특수한 상황과 역할은 원장들로 하여금 많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한 것으로 확인된다. 휴원이 길어지면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예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양육수당을 받는 것이 이익이다.’ 라는 내용이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일부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료 결제도 받지 못하고 인건비를 자기부담으로 떠안아야하는 경우(2020년 7월7일, S원장, 개별면담)도 있었다. 이는 운영비의 부족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한다는 송정순(2020)과 이정아와 양연숙(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는 어린이집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서류 준비를 요청하였다. 기존에 작성하던 서류에 코로나-19로 인한 서류의 추가로 인하여 어린이집원장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업무의 가중 뿐 아니라 어린이집 현장에 맞지 않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만들어진 정부 정책으로 혼란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들은 영·유아와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등 평소와 완전히 다른 일상을 경험하였다. 어린이집 일과에서 신체적 접촉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자연스러움이 무너지게 되었다. 영·유아와 신체접촉은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정서가 공유될 수 있다(최예린, 2020)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실천 할 수 없는 현장 속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결국, 감염과 접촉을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움, 긴장, 불안의 연속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면서 이로 인해 운영 및 보육업무 등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마스크에 갇힌 일상과 지킬 수 없는 매뉴얼 등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파인 홈들 속에 놓여지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코로나 -19로 인해 달라진 일상 속 어린이집 원장들은 파인 홈 속에서 서서히 건강관리 책임자로서의 경계지대 및 보육철학, 보육과정 계획 및 실행자로서의 경계지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코로나-19 매뉴얼에서는 어린이집에 건강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직원과 모든 영유아들에게 1일 2회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보건복지부, 2020a) 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원장을 건강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체열기록을 문서화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추가되었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염병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능동적인 대처능력이 필요하다(최현주, 2017). 어린이집 원장들은 청결과 위생 및 방역활동으로 인해 업무는 늘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 교직원과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 여기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보육철학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원장들은 그들의 보육철학에 있어 큰 틀은 변함이 없지만 건강과 안전, 위생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개개인 각자가 자기관리를 잘 수행하여야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방법적인 면에서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자신의 보육철학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정덕희, 2008) 코로나-19로 인한 달라진 일상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신종감염병의 특성인 예측 불가능성으로부터 오는 두려운 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연구 자료의 분석과정을 통해, 이들이 체험한 코로나-19 속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 라는 감염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아직도 매일 확진자가 주변에서 나오는 것이 일상인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홈 파인 공간에서 점차 경계지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과 관련한 보육료지원정책에 대하여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됐을 시에는 불가항력의 재난과 같은 상황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책이나 감염병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매뉴얼의 보완이 요구된다. 가정에서 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어린이집을 퇴소함으로

발생되는 어린이집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유치원에 준하는 방역인력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영·유아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라는 매뉴얼대로라면 보육실에서 영·유아들간의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특히 영아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부터 모든 활동에서 교사의 밀접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교사 대 영·유아 수의 축소는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교직원들의 교육이나 부모교육은 비대면이나 화상채팅 등을 활용하여 소통이 가능하나 영·유아들의 경우 교사와 아동, 아동과 아동, 교구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 또한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교사 대 영·유아 수의 축소일 것이다. 김순미(2018)의 연구에서 어린이집의 직무환경 개선 방안으로 교사 대 영·유아 수의 축소를 제시하였고, 보육현장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중 하나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말하고 있는 고정아(2017)의 연구와 일치한다.

셋째, 전염병 발생 시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가정의 소통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원으로 자녀를 등원 시키는 부모도 모두 불안한 정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할 것이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가벼운 긴장을 느끼는 상태에서 중요한 사회

적 상호작용이나 수행에서 지속적인 두려움을 주어 정상적인 일상생활, 직업, 학교, 사회활동에 심각한 지장과 고통을 초래하는 병리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박경, 오하연, 2017). 어린이집 전용 감염병 예방 지침 확립과 감염병 대응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기관에서도 학부모들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협조를 구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긴급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집단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아이들을 한곳에서 집단 돌봄으로 보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개별 돌봄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감염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나 원장 또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아이들 또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므로 어린이집 운영 주체로서 집단보육 안에서 개별보육을 할 방안을 연구하고 찾아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부모들이 자유롭게 개별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돌봄의 사회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고 복지체계와 돌봄 지원이 개인보다는 가족 단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돌봄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에게 지워져 있다(김정혜, 2017). 대체로 소득계층이 높으면 돌봄 휴가나 재택근무 등으로 개별 돌봄을 하지만, 취약계층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다(이무식, 2020; 정익중, 2020). 정부는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쉬게 되는 경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해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개별 돌봄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B시에 있는 어린이집원장 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전체 어린이집원장 혹은 다른 교육기관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 점을 갖는다.

둘째, 다양한 대상 - 교육기관, 학부모, 교직원 - 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연구를 통해 추후 발생하는 감염병 확산 상황 시 올바른 대처를 위한 기초자료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염병 발생 시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가정양육 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을 통해 추후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시 어린이집 원장들의 보육과정 실행을 돕고, 가정양육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숙, 이승은, 송승민, 김수지 (2019). 가정어린이집원장이 경험하는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26(3), 117-137.
- 국지윤 (2020). 어린이집 운영관련 판례분석. 유아교육연구, 40(4), 291-316.
- 고광욱 (202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신체활동수칙.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1), 109-112.
- 고정아 (2017).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 의식과 서비스 질 및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동희, 박정하 (2018). 어린이, 부모, 교사를 위한 웹기반 감염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3), 430-43
- 김순미 (2018).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직무환영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 권경숙 (20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느끼는 원장들의 고충과 보람.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4), 45-71.
- 김은주 (2016). 들뢰즈의 생성의 공간 - 변이하는 공간과 공간 생산을 중심으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27(2), 7-37.
- 김일옥, 박현정 (2014). 보육교사의 감염병 예방 관리실태 및 교육 요구 조사. 한국보육학회지, 14(1), 23-50.
- 김정혜 (2017). 근로자의 가족돌봄 경험과 가족돌봄휴직제도 개선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5), 201-240.
- 민정애 (2010). 영, 유아의 전염병예방접종에 관한 교사의 인식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건희, 은상준, 이은정, 이체은, 박두용, 한경훈, 김 윤, 이진석 (2008). 우리나라 생활안전 영역의 비의도적 손상 발생률 및 발생 양상. 예방의학학회지, 41(4), 265-271.
- 박 경, 오하연 (2017).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

- 불안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 335-35.
- 배수정 (2012).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보람과 어려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호 (2011).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 유치원장들의 사례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지, 12(1), 27-50.
- 보건복지부 (2020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http://info.childcare.go.kr/cpis2gi/community/policy/PolicySl.jsp?flag=Sl&bgb=1&bid=683427&programId=P0001PG00001364&BVIEWGB=2/>에서 5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0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현황(9월 6일 0시), 중앙방역대책본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6&CONT_SEQ=359761
- 손희나 (2020).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어린이집원장의 어려움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안-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순 (2019).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체감하는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희망이야기.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진호 (2020. 2. 20). 대구 확진자에 미술학원·어린이집 교사 각 1명... 시설 폐쇄.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10938>에서 2020 년 2 월 21 일 인출.
- 양희영 (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재현과 되기 현상에 대한 비교 연구: 미메시스와 들뢰즈의 되기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3(2), 200-212.
- 윤희수 (2016).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탐색.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무식 (2020).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한 국민 행동수칙과 위험소통에 대한 단상.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1). 103-107.
- 이옥경 (2015). 맞벌이와 외벌이의 어린이집 이용 실태와 필요사항. 부산여성가족 Brief, 23, 1-8.
- 이정아, 양연숙 (2019).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느끼는 운영의 어려움. 사회과학논문집, 37(2). 68-100.
- 이정우 (1999). 시뮬라크르의 시대. 서울: 거름.
- 이정우 (2005). 들뢰즈와 ‘존재의 일의성’. 비평과 이론, 10(2), 5-9.
- 임지현, 이경화 (2018). 결혼이민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에서 엄마되기. 교육혁신연구, 28(2), 369-397.
- 정덕희 (2008). 민간보육시설장의 일과 갈등.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93-119.
- 정미애, 이혜선, 배지희 (2020). 직장어린이집 원장들의 열린어린이집 운영 경험 및 개선을 위한 제안. 육아지원연구, 15(1), 51-79.
- 정아란, 최민수 (2017).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예방 및 응급처치 지식과 관리수행 능력에 관한 실태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413-438.

- 정익중 (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N/A) 13, 47-59.
- 정현주 (2015).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경계지대’, ‘억압의 교차성’, ‘변위’ 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대한지리학회지, 50(3), 289-303.
- 조용환 (2011).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차영숙, 권미량 (2011).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관리의 어려움과 해결을 위한 노력. 생태 유아교육연구, 10(3), 23-49.
- 최예린 (2020). 코로나 19에 대한 보육교사의 정서적 경험과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22(1), 253-279.
- 최일영 (2020. 2. 23). 대구에서 4세 아이도 코로나 확진. 하루 새 126명 추가.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71196&code=61122020&cp=nv>에서 2020년 2월 24일 인출.
- 최현주 (2017). 영유아 질병관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식 및 대처방안.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현정, 채혜경 (2018). 어린이집 운영자가 겪는 환아 보육의 실태, 어려움과 요구. 교육혁신연구, 28(3), 465-488.
- 홍진호, 민옥기, 조아라, 임환섭 (2019). 수족구병의 원인 Enterovirus의 계절에 따른 양성 추이 및 검체별 양성률. 종합학술대회 초록집, 57, 136.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 2013 출판)
- Giorgi, A. (2004).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신경림 외 역).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서울: 현문사.(원전 1985 출판)
- Glesne, C. (2017). 질적 연구자 되기[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안혜준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전 2016 출판)
- Pillitteri, A. (2003).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of the Childbearing and Childbearing Family*. Philadelphia: Lippincott.
- Safadi, M. A. P. (2020). “The intriguing features of COVID 19 in children and its impact on the pandemic”. *Jornal de Pediatria* 96, 265-268.
- Zimmermann, P, and N. Curtis. (2020). “Coronavirus infections in children including COVID-19”. *Pediatr Infect Dis J* 39, 355-368.

1 차원고접수 : 2020. 10. 25.

수정원고접수 : 2020. 12. 17.

최종게재결정 : 2020. 12. 22.

Study of Daily Life at a Childcare Cente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ccording to the director's perceptions of the childcare center

Son Junhee

Kim Sunhee

Lee Heeyo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ky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anings of changed daily life in Covid-19 from the perception of the directors of child care centers in Korea. Five persons who direct child care center in B-c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collect data interview was used. Texts were collected through 3 times individual interview.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approach. Research analysis revealed two categories and nine concepts.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directors experienced striated space from the changed life caused by Covid-19. The striated spaces are from closed child care centers, two faces of extension of childcare center closing and emergency child care, difficulty in budgeting, locking down daily lives in a face mask, inflexible regulation, and continuous newcomer's adaptation period. Second, directors were making borderlands of changed life in Covid-19. In striated spaces, they were making a borderland of a role as a healthcare manager and as planner and practitioner of child care philosophy and curriculu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erms of analyzing data from vivid voices of child care directors who experienced unpredictable new infectious disease and examining meanings of changed daily life in Covid-19 comprehensively. This study may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crisis response and government support for directors of child care centers.

Keywords: Covid-19, Child care center Director, Striated spaces, borderlands